

중앙한방병원 원장  
임장신

# 중풍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의 손상으로 팔다리의 마비와 언어장애 의식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질병 사망 원인 중에서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고,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사망률보다도 치명적인 후유증 때문에 평생을 반신불수나 치매로 살아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 중요한 병이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사 습관의 변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중풍 환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그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중풍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는 산재환자에서 뇌졸중 환자의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

### ◆ 중풍의 전조증상

중풍의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어느 정도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도 뇌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거나 가벼워서 일시적으로 어지럽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약간 둔해지는 정도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 중풍의 증상

중풍은 뇌세포의 손상된 부위에 따라 그 증상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은 1) 반신마비 2) 손발의 저림 3) 두통 및 구토 4) 언어 장애 5) 어지럼증 6) 안면신경마비 7) 치매 8) 대소변 조절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 중풍의 예방


중풍에는 반드시 근본 원인이 내재해 있으므로 이 위

험한 인자를 제거함이 재발 방지의 중요한 요소이다.

1) 술과 담배는 멀리한다. 2) 식사 습관은 과식과 편식을 피하며 짜게 먹는 것을 삼가며 체질에 맞는 식사를 한다. 3) 적당한 운동을 하여 비만을 방지하고 순환기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4) 지나친 긴장, 과로,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충격을 피한다. 5) 급격한 환경 변화나 기온 변화에 조심한다.

### ◆ 중풍의 예방 진단

- 1) 초음파의 원리를 이용한 뇌혈류진단기(TCD)를 이용하여, 뇌의 혈액순환 상태를 진단한다.
- 2) 설문 조사 및 외형 관찰을 통해 체질 감별을 하여 식이 지도에 활용한다.
- 3) 각종 혈액검사 및 소변 검사를 통하여 고지혈증 및 당뇨병 등의 질병 유무를 확인한다
- 4) 혈압측정 및 심전도 검사를 하여 심장 및 혈관계의 상태를 관찰한다.
- 5) 중풍의 전조증상을 망문문절(望聞問切)의 사진(四診)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찰한다.

이상과 같이 정확한 진단 하에 중풍 환자의 취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 위험 인자를 치료함과 동시에 섭생을 절도 있게 하고 체력에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또한 체질에 맞는 식이 습관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침치료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불치병이란 개념의 무서운 중풍 황소바람도 재울 수 있다. 최근에는 각종 현대적 장비를 이용하여 뇌혈관의 혈액순환 상태를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조금만 건강에 관심을 둔다면 중풍을 미리 예방하여 중년 이후 건강을 약속 받을 수 있다. 

상담문의 : 032-5000-176